



ISSPRO



International Secretarial Studies Professionals

Page.1

[특집]

명품 국제비서학과의 마스코트
**제 11회 MISS/MR
스마일 선발대회**

Page.2

학교 기숙사 통금시간 연장

선물이 아닌 마음으로 표현하는
스승의 날

부산 카톨릭대학교와 함께하는
아르케프리젠테이션 대회

Page.3

BUFS 명랑운동회

상경대 체육대회

다같이 즐기는 대동제

Page.4

BUFS 학습 페스티벌

미미대회 생생한 후기
INTERVIEW

명품 국제비서학과의 마스코트
제 11회 MISS/MR 스마일 선발대회

싱그러운 봄이 가고 여름이 올 무렵, 지난 5월 24일 수요일 오후 1시, 부산외국어대학교 만오토리움(G203)에서 제 11회 Miss./Mr. 스마일 선발대회가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국제비서학과의 대표적인 행사 중 하나로 3학년 학우들의 아름다운 웃음과 워킹 그리고 자신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보여주는 국제비서학과만의 명품 대회이다. 심사위원으로 국제비서학과 교수님이신 김미영 교수님, 송현정 교수님, 류영태 교수님께서 자리를 빛내주셨다.

대회를 위해 약 한 달 동안 학년별 적극적인 참여로 준비가 이루어졌다. 1학년 학우들은 포스터를 게시하고 우리 학과를 항상 응원해주는 분들과 교내 교수님들께 초대장 나눠드리며 대회를 홍보역할을 맡았고, 2학년 학우들은 음향, 무대 진행, 참가자 보조 등 3학년 참가자들을 더욱 더 빛내기 위한 스텝으로써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힘썼다. 3학년 학우들은 본 대회의 주인공답게 무대에서 빛나기 위해 1동, 체육관 등 교내 곳곳에서 늦은 시간까지 아름다운 미소와 워킹 그리고 장기자랑을 준비했고 이를 위해 많은 4학년 학우들이 작년 대회 경험을 살려 3학년 학우들을 지도하는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홍채빈(16) 학우와 박성웅(16) 학우의 사회로 제 11회 Miss/Mr. 스마일 선발대회의 막을 열었다. 오프닝 무대로 한지예(15) 학우 외 5명의 학우들이 준비한 미니 오케스트라 합동 연주가 있었다. 플롯의 맑은소리, 바이올린의 세련된소리, 그리고 깔끔한 피아노 연주가 초조한 학우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또한,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늦었지만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 3분의 교수님들께 풍성한 꽃다발과 노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어 국제비서학과의 학과장인 송현정 교수님께서 "간절하게 준비해 온 행사를 바라는 만큼 끝까지 모두 다 열띤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하셨고, 김미영 교수님께서 심사 기준을 발표해 주셨다. "4학년 학우들도 멘토 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3학년들도 대회 준비를 하느라 수고했다"고 인사말을 전하시며, "1차에서는 표정, 워킹, 자세를 5점씩 총 15점 만점으로 보고 2차에서는 인터뷰가 추가되어 심사를 볼 것"이라고 심사 기준을 설명하여 주셨다.

축사와 심사기준 설명이 끝나고 예선이 시작되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워킹과 각자의 매력이 담긴 자기소개를 보여주었다. 뒤이어 대회의 오프닝을 맡아 활기를 띄어준 마술, 한국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한국무용, 미녀와 야수를 귀엽게 표현한 리코더 합주, 웃음과 재미를 선사한 립싱크, 부드럽지만 카리스마 있는 태권무, 우리의 애국심을 보여주는 난타, 지친 모두를 위한 치어리딩, 손끝 하나로 아름다움을 표현한 수화,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찬조공연을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 치열한 심사 속에서 본선 진출자 8명이 발표되고 짧은 인터뷰를 가졌다. 이어 다양한 축하공연으로 먼저 SURPRISE의 1학년 학우들의 맑은 노랫소리로 2부의 막을 열어주었고, 중앙동아리 MAP의 멋진 춤으로 객석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그리고 김주형(17) 학우와 남경민(17) 학우의 랩과 1학년 여학우들의 댄스로 객석은 더욱 후끈해졌다. 또한, 학생장 최지현(14) 학우가 준비한 'Off the record' 영상을 보며 3학년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준비과정과 뒷이야기까지 생생하게 알 수 있었다.

대망의 시상식이 진행되고, 열정적인 멘토링으로 3학년 참가자들을 독려한 영승주(14) 학우는 14학년 동기들의 환호 속에서 멘토상을 수상하였고 잠깐이나마 애국심을 갖게 해준 난타 '만세' 장기자랑을 준비한 6조는 재치상을 수상했다. 뒤이어 본선진출자 8명 중 박상민(13)학우 외 4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종 후보 3명만 남은 가운데 인기상 수상자가 호명되었다. 인기상은 매력있는 미소를 지닌 김예린(15) 학우가 수상하였으며, 매너상은 아름답고 밝은 미소를 지닌 김주영(15) 학우에게 수여되었다. 그리고 최고의 미소 스마일 상을 받은 소연희(15) 학우는 "1학년으로 들어와서 처음 이 무대를 보았을때는 선배들이 너무 존경스러웠는데 이 자리에 직접 서게 되어 배울 점도 많았다"며 자신을 가르친 멘토들 뿐만 아니라 이 무대를 준비해 준 후배들에게도 아낌없이 감사를 표현했으며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3학년 참가자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기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 진행한 Miss/Mr. 스마일대회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번 Miss / Mr. 스마일대회는 3학년만을 위한 대회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회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대회였고 모두 서로를 다독여주는 모습이 아름다운 대회였다. 1학년 학우들의 홍보와 축하무대, 2학년 학우들의 스텝활동, 3학년 학우들의 완벽한 무대, 4학년 학우들의 노하우가 담긴 지도로 인해 이번 대회가 완성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단 한사람이 아닌 모두의 노력과 사랑으로 국제비서학과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16 강민지, 17윤희현, 17최예인
[2017.06.33호]



2017년도 학교 기숙사 통금시간 연장



지난 3월 13일부터 30일까지 총 17일간 무한도전 총학생회에서는 재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대학 시설, 학생복지, 서비스, 기숙사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관한 주제로 2017년 캠퍼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불만사항들이 많이 토로되었다. 그중에서도 기숙사 통금시간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한도전 총학생회에서는 기숙사 통금 시간 연장을 주제로 기숙사 관장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총학생회는 '대학생은 성인이며, 대학은 성인들을 위한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대학이 운영하는 제도는 학생들을 성인으로 인정하는 선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며 통금시간 1시간 연장을 요구했다. 이에 기숙사 측에서는 '통금시간이 연장될 경우의 안전 문제와 함께 점호시간 또한 1시간 미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무한도전 총학생회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통금시간 1시간 연장의 설문 문항에서 참여자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확인했다는 점을 전달했지만, 점호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다는 기숙사 측의 의견에 따라 5월 2일 방문 점호 시 기숙사 점호시간을 1시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묻고 통금시간 연장에 대한 투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투표 결과 교내 기숙사 거주자인 투표자 969명 중 통금시간 유지 528명, 통금시간 연장 431명, 무효표 10명으로 통금시간 연장보다 통금시간 유지에 대한 의견이 97명이 더 많아 현재 통금시간 12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반면 교외 기숙사는 총 투표자수 129명 중 통금시간 유지 16명, 통금시간 연장 113명, 무효표 0명으로 통금시간 연장에 대한 의견이 월등히 높아 5월 10일부터 통금시간을 1시로 연장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학생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통금시간이 연장 되지 않아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다. '점호시간에 취침을 하는 사생과, 점호 시간을 1시로 미루면 기숙사 층장들이 피곤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 사생들이 많아서 통금시간유지 투표 결과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해준 무한도전 총학생회가 앞으로도 다른 불만사항들이 생겨났을 때 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많은 학우들이 만족하는 대학생활을 보냈으면 한다.



16김나운, 17박혜주 기자



선물이 아닌 마음으로 표현하는 스승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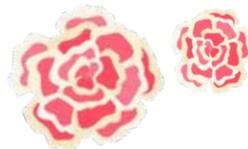


5월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김영란 법'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영란 법'이 시행되기 전의 학생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생님께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드렸다. 하지만 '김영란 법', 즉 청탁금지 법이 시행되면서 몇 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들이 생겼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을 할 시 오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김영란 법'에 해당된다. 하지만 김영란 법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의 상황도 있다. 학생대표가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과 교과 담당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이나 꽃을 드리는 것 그리고 졸업한 학교나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것은 오만 원 이하의 선물이면 괜찮다. 학생에 대한 평가가 종료된 이후이기에 대가성이 없다. 따라서 오만 원 이하의 선물이나 삼만 원 이하의 식사대접을 해드리려면 졸업을 했거나 학년이 올라가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평가가 끝났어야 가능하다. 또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연휴나 명절 때 선물하는 것은 '김영란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영란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스승의 날을 자신을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학생내에 차별이 일어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는 등 많은 부정부패가 발생하였다. 또한 우리사회에 '물질만능주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사회 불평등을 가지고 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김영란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빈부격차와 빈부갈등이 심화되어 우리사회에 더 많은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있을 스승의 날에도 '김영란 법'이 적용되어 부정부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김영란 법을 긍정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스승의 날에 물질적인 선물보다는 마음이 담긴 정성어린 편지로 대체하였다. 사회의 부패를 막는 '김영란 법'을 통해 의미 있는 마음을 전달하며 따뜻한 스승의 날이 될 수 있게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실천하길 바란다.

16박지혜, 17이상하 기자



부산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하는 제3회 아르케 프리젠테이션 대회

지난 5월 15일 월요일 부산외국어대학교 트리니티홀 D110 에서 제 3회 아르케 프리젠테이션 대회 본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청년의, 청년을 위한 정치', 'AI, 인간, 그리고 미래의 일', '각국의 '트럼프'를 극복하는 길', '기타 자유 주제' 이렇게 4가지였으며, 부산외국어대학교 '만오교양대학'과 부산가톨릭대학교 '트리니타스칼리지'가 공동 주최하여 각 학교별 4팀씩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다.

우리 대학교에서 지원한 22팀 중 4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는데, 4팀 중 우려 3팀이 국제비서학과 학우들이었다. 국제비서학과 김선우(16)학우, 이해림(16)학우의 '나비잠'팀과 조민이(16)학우, 이희지(16)학우, 강민지(16)학우, 신혜림(16)학우의 'WIN WIN'팀, 장은형(14)학우, 김영서(13)학우, 이주원(13)학우의 '빅토리 국비'팀이 각자의 다른 주제를 가지고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다. '나비잠'팀은 '최연소 20대 대통령 공약 3가지'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나갔으며, 'WIN WIN'팀은 'AI와 비서의 공생방안 이유' 라는 주제로, 마지막 '빅토리 국비'팀은 '각국의 트럼프를 극복하는 길' 이라는 주제로 순서대로 멋진 발표를 진행해 나갔다. 8팀 모두 멋진 발표를 끝내고, 기다리던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최우수상은 부산가톨릭대학교 한 팀이 수상하였고, 우수상은 우리학교 '알레르기'팀과 부산가톨릭대학교 2팀이 수상하였으며 마지막 장려상은 국제비서학과 3팀과 부산가톨릭대학교 한 팀이 수상을 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를 위해 많은 노력과 열심히 흘린 땀으로 본선에 진출한 8팀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나비잠'팀 학우들은 본선 진출 4팀 중 3팀이 우려 국제비서학과 학우들이었다는 것에 자랑스러웠고,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하였다. 또한, 'WIN WIN'팀은 실력을 쌓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했으며, '빅토리 국비'팀은 PPT 능력이 향상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위의 학우들의 대회 참여로 좋은 결과를 얻었듯이 앞으로도 학교 내 많은 대회에서 국제비서학과 학우들이 학과를 빛내주어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를 얻기 바란다.

16김선우 기자

1만 외성인이 함께한 BUFS 명랑 운동회

부슬부슬 봄비가 내리던 지난 4월 6일 목요일, 제 33대 무한도전 총학생회 주최로 '제 1회 명랑 운동회'가 많은 이의 박수 속에 B동 체육관에서 막을 열었다. 열린 명랑 운동회는 국제비서학과가 속한 상경대. 유럽 미주대는 청팀, 아시아대. 인문사회대. 이 공대는 백팀으로 나뉘져 진행되었다. 국제비서학과 학우들은 청팀의 드레스코드인 파란색 옷을 맞춰 입고,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응원도구로 청팀을 열심히 응원하였다.



이번 명랑 운동회는 각 팀 내 단장들의 개회선언과 총장님의 축사로 1부를 시작해, 청백 응원전, 미션 릴레이, 낫다리밟기, O.X 퀴즈 등 다양한 경기 종목이 진행되었다. 특히 체육대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응원단에는 국제비서학과의 최지현(14), 김은지(15), 신혜림(16), 박나영(16), 노하린(17) 학우가 참여해 열띤 응원을 펼쳐 운동회를 더욱 신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었다. 응원전과 미션 릴레이로 단합력을 키운 1부가 끝난 후,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지고 곧바로 2부가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신발 던지기, 청.백 농구, 줄다리기 등의 종목이 진행되었다. 모든 경기가 진행된 후, 경품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한우, 블루투스 스피커 등 푸짐한 상품을 나누어 가지며 올해 처음 열린 BUFS 명랑운동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었다. 또한 국제비서학과가 속한 청팀은 응원전과 색판 뒤집기 등의 종목에서 값진 승리를 거두어 더욱 즐겁게 운동회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제1회 명랑 운동회의 승자는 백팀에게 돌아갔지만 따뜻한 봄, 국제비서학과의 학우들을 비롯하여 모든 외성인들과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응원하며 학우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봄바람이 불던 4월, 활기차고 열정 넘치게 응원하던 국제비서학우들의 모습을 추억하길 바란다.

16박나영, 17조유라 기자

더워진 날씨만큼 열정 가득했던 상경대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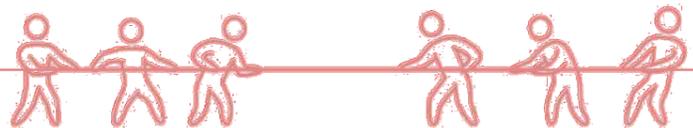
열정으로 가득했던 5월16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우암동 캠퍼스에서 다같이 상경대 학생회의 멋진 소개와 함께 상경대 글로벌 창의융합대학의 신나는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이 날에는 국제비서 경제금융학부, 경영학부, 국제무역마케팅학부, G2비즈니스 융합학부, 국제학부 등 많은 상경대 글로벌 창의융합대학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다양한 학부들이 모여 운동장에 앉아 있으니 설렘이 배로 된 것 같았다.

1부의 시작은 각 학과의 학생장 대항전으로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학생장 대항전에서 각 과 학생장들이 시원하게 물벼락을 맞는 모습을 통해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 같았다. 이어진 기마전에서는 최예인(17)학우가 출전하여 스피드와 힘을 겸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OX퀴즈, 전투줄다리기에 우리학과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잇달았다. 특히 전투줄다리기에서는 박상민(13), 이주원(13), 김주형(17), 남경민(17)학우가 출전해 힘과 열정을 보여주었다. 1부가 끝난 후에는 점심시간을 가지며 선배들의 추억이 담긴 우암동 캠퍼스를 여기저기 둘러보며 우암동 캠퍼스에 대한 추억을 쌓았다. 또한 모여 앉아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학우들의 모습은 마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듯 즐거워 보였다.

1부로 뜨거워진 분위기속에서 2부가 큰 함성과 박수와 함께 시작되었다. 2부에는 기존피구의 업그레이드버전으로 세 팀이 두 개의 공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삼방피구, OX 퀴즈, 닭싸움, 계주 등의 다양한 종목들로 진행되었다. 우리학과 학우들도 각 종목에 참여해 열심히 뛰어주었다. 특히, 계주에서는 최지현(14), 김혜림(17), 김주형(17), 남경민(17), 추나은(17)학우가 출전해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었다. 이긴 종목도 있고 아쉽게 진 종목들도 있지만 모든 학우들이 참여해 뜻 깊은 시간을 가진데 에 의미를 두고 성공적으로 체육대회의 막을 내렸다.

상경대 글로벌 창의융합대학의 체육대회는 더워진 날씨 속에서 많은 학우들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 있었다. 특히, 국제비서학과 학우들이 하나되어 응원하고 참여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 모두에게 의미 있는 추억이 되었다. 앞으로 있을 행사에서도 오늘처럼 단합된 모습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국제비서학과 학우들이 되기를 바란다.

16 최유빈, 17박소현 기자



다 같이 즐기는 대동제



5월24일,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 했던 것과는 달리 쨍한 날씨와 함께 모두가 기대했던 대동제가 시작됐다. 매년 부산외국어대학교 남산동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대동제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이며 올해는 'BUFSMADE'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축제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고 우리학교 학우들뿐만 아니라 타 학교 학우들과 지역 주민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였다.

흥겨운 축제 속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강연들과 학생들을 위한 많은 사업단 프로그램들도 진행되었다. '자아'와 '관계'를 주제로 총 7명의 강사가 서로 다른 소주제로 트리니티 홀에서 강연을 진행하여 우리에게 뜻 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중앙무대에서는 푸드파이터, 모두의 외성,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학과 대항전 등의 학우들이 최근 흥미를 갖고 있는 소재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국제비서학과 16학번 최유빈, 이희지 학우와 17학번 남경민, 이수연, 신다예 학우가 모두의 외성에 참가하여 축제에 재미를 더해주었다. 원활한 쓰레기 정리를 위한 'CLEAN 부스 콘테스트'도 시행되었다. 이 콘테스트는 매일 참가하는 부스 중 분리수거와 음식물처리, 바닥상태가 가장 양호한 1개 부스를 선정하여 회당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콘테스트로 3일차에 국제비서학과가 CLEAN 부스에 선정되었다.

축제에 열기를 더해 줄 대학교 축제의 꽃, 초청가수들의 열정 넘치는 공연도 있었다. 이번 축제에는 발라드 요정 벤, 파워풀한 보컬 에일리 그리고 래퍼 기리보이가 초청되어 한껏 분위기를 달궜다. 또한 초청가수 못지않은 실력으로 숨겨둔 끼를 마음껏 뽐내는 듀엣 가요제 참가자들도 있었다. 외성 학우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기에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여 실력을 발휘하였다. 이 외에도 중앙동아리의 축하공연, 학부 및 학과의 연습이 돋보인 전통 춤 공연등도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축제에 주점이 빠질 수 없듯이 국제비서학과도 웨딩을 컨셉으로한 주점을 운영하였다. 또한 <국제비서학과 놀러와 듀오> 라는 제목으로 '너에게 뽕! 꼬치쓰!', '먹고 싶은 거 다 콜라' 등과 같은 재치 넘치는 메뉴 이름과 예쁘게 꾸며진 부스 덕분에 외성인들의 시선을 확 끌 수 있었다. 주점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데에는 주점 운영팀장을 맡은 15학번, 16학번 학우들, 그리고 17학번 학우들과 13대 학생회의 노력이 숨어있었다. 바쁜 와중에도 국제비서학과 학우들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 올 해 역시 부산외대의 꽃다운 인기를 끌며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더웠던 날씨 탓에 모두 힘들었겠지만 국제비서학과만의 결속력과 책임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축제 기간 동안 빛을 발했던 우리 학우들의 노력이 앞으로도 찬란히 빛나길 바란다.

16 심정우, 16홍채빈



BUFS 학습 페스티벌

지난 5월 10일 수요일부터 5월 11일 목요일까지 본교의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G동 홀 앞에서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BUFS 학습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학습에 대한 의지를 키워주기 위해 열렸으며, 본교 ACE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NOMAD 프로그램의 역량 중 자기관리역량(N)과 대인관계역량(A)을 증진시켜주고 참여 후에 NOMAD 마일리지뿐만 아니라 소정의 기념품 또한 제공하여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이 학습 페스티벌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대상 학과와 학년의 제한 없이 우리학교 재학생들이면 모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구성으로는 ▶나의 학습 스타일을 알아보자! ▶고민을 버리고 목표를 세우자! ▶전두엽 자극 퀴즈! ▶학습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 등이 있었다. 첫 번째 '나의 학습 스타일을 알아보자!'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의 학습 스타일에 대해 묻는 문항에 체크하고 그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두 번째 '고민을 버리고 목표를 세우자!' 프로그램에서는



에 자신의 현재 고민과 목표를 쓰고 공유하였고, 세 번째 '전두엽 자극 퀴즈!'에서는 년센스식의 문제를 세 개 풀고 문제를 맞히면 경품을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학습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에서는 30분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적힌 팸플릿의 내용을 묻는 골든벨을 진행하였고 모두 맞추면 경품을 받을 수 있었다. 페스티벌 마지막에는 위 네 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확인하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국제비서학과의 많은 학우들도 이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학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학습에 대한 의지를 키우는 기회를 가지며 많은 상품도 얻어갈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페스티벌에 많이 참여하여 NOMAD 마일리지도 챙기고 학교와 학습에 대해 관심과 의지를 가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16 김채린, 17 노하린 기자

INTERVIEW

15 소연희 (스마일상 수상자)

지난 5월,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학우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던 한 달이었습니다. Miss&Mr. 스마일 선발대회를 마치고 저는 너무나도 과분한 선물을 얻어간 것 같아 아직도 그 순간들이 꿈만 같습니다. 서로 응원해주고 떨지 말라고 다독여주며 긴 시간의 마라톤을 이어간 저의 동기들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꽃다발을 전해준 17학번, 가까이에서 손발이 되어준 16학번 후배들과 자신의 일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살펴 주신 13,14학번 선배님들, 무엇보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5 김주영 (매너상 수상자)

워킹, 자기소개, 장기자랑을 조원들과 함께 거의 매일같이 연습해가면서 힘들고 의견이 안 맞아서 갈등도 있었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더 돈독해지고 보람을 느낀 것 같습니다. 대회당일에 예상치도 못한 매너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니 과연 내가 받아도 되는 상일까 생각이 들면서 우리 조원들, 멘토 언니들에게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나니 이 하루를 위해 약 한달을 힘들게 노력했던 것이 한번에 지나가버려 허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연습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있었기에 저에게 이 대회는 정말 크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15 김예린 (인기상 수상자)

한달동안 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워킹 연습, 장기자랑 연습 하느라 힘들었지만 이렇게 대회가 끝나고 나니 시원섭섭한 마음입니다. 상을 받으리라 생각은 못했는데 이렇게 상까지 주시니 뿌듯하고 조원들 다같이 고생해서 얻어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4 염승주 (멘토상 수상자)

선후배 간 더 돈독해질 수 있었던 한 달 간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동기들과 저녁 늦게까지 함께 멘토링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더 끈끈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동기들과 후배들과 애정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스마일 대회 멘토 역할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15 김예진 (재치상 수상자)

6조 조원들과 멘토 선배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아이디어 중 독립군 컨셉으로 '만세' 라는 노래로 난타를 준비했습니다. 장기자랑 우승은 독립군과 애국심으로 관객 분들의 마음을 울려 재치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무대를 위해 열심히 한 6조 친구들, 칭찬과 피드백을 아낌없이 주신 멘토 선배님들,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16 홍채빈 (사회자)

사회자로써 모든 스태프들과 합을 맞춰야 하는 점이 제일 힘들었지만 대회 참가자들을 제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그들을 직접 소개할 수 있어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내년 Miss./Mr. 스마일 선발대회 참가자이기에 선배님들의 좋은 모습을 따라하고 스스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같이 배울 수 있어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년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17 최예민 (학기 총대)

1학년 처음으로 맞이한 미미대회였기에 대부분의 운영을 2,3,4학년 선배들께서 직접 준비한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에 3학년 선배들의 웃음과 눈물을 보고 이 대회가 얼마나 중요한 대회인지 알게 되었고 이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노력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후에 이 대회를 준비할 날이 다가올 때 선배님들의 대회에 대한 마음가짐을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